



"세모시 키우는 사람하고 자식 키우는 놈은 막말을 못 한다"

뜻: 아주 공들여야 하는 세모시 재배나 자녀 양육처럼 어려운 일에 대해서는 남을 함부로 비판하거나 말 조심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

이 속담과 관련있는 말 양육 · 불확실성 · 언행

바른 글씨 따라쓰기

중심 십자선을 기준으로 자음과 모음의 균형을 맞춰 써 보세요

1단계 보기 바른 글씨의 모양과 획을 눈으로 살펴보세요

세 모 시 키 우 는 사 람 하 고 자 식
키 우 는 놈 은 막 말 을 못 한 다

2단계 따라 쓰기 열린 글씨를 따라 연필로 천천히 써 보세요

세 모 시 키 우 는 사 람 하 고 자 식
키 우 는 놈 은 막 말 을 못 한 다

3단계 혼자 쓰기 1·2단계를 종이로 가린 뒤, 속담을 떠올려 써 보세요

세 모 시 키 우 는 사 람 하 고 자 식
키 우 는 놈 은 막 말 을 못 한 다

다 쓴 뒤 선생님과 확인해요



웹에서 더 알아보기 스마트폰으로 QR을 비추면 바로 열려요

재미있는 속담 이야기와 퀴즈가 기다려요!

속담이 일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생생한 이야기와 해설을 웹에서 확인해 보세요.

초성 퀴즈

[세 모 시] [키 우 는] [사 람 하 고] [자 식] [키 우 는] [놈 은] [막 말 을] [못] [한 다]

웹에서 보기

